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2133-5445
지역일자리팀장	권영숙	2133-5456
담 당 자	이훈영	2133-5459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스쿨존 안전지킴이,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안심일자리...취약계층 챙긴다

- 시·자치구 1,631개 사업에서 7,147명 안심일자리...5개 분야 약자 돕는 일자리 활동 시작
-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 및 민간일자리 위축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70% 상반기 선제집행
- '23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의 다른 분야 약자 돕는 자조·자립 기반 방식으로 개편·운영
-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 지하철 안전요원 등 시대변화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할 것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안심 도시락 배달도우미는 따끈따끈한 밥, 국과 반찬을 담은 보온 도시락을 결식 우려·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합니다.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현관에 나가지 못하지만, 배달 도우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 노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매번 안부까지 확인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 서울시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했다.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 특히, 물가·금리·환율 3고(高)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도 챙길 계획이다.

* '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1.6%(‘22년 2.5% 대비, 0.9%p 감소) (기획재정부 ‘23년 경제정책방향)

□ 올해 상반기 사업은 1월 10일~6월 30일 기간 동안 운영된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 서울지하철 안전요원, 무단투기 단속하는 환경보안관, 어르신 디지털 적응 돕는 디지털 안내사 등 시·자치구에서 진행되는 1,631개 일자리 사업에 총 7,147명이 참여한다.

□ 2023년부터 개편되어 운영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사업이다. 신체적·경제적·사회안전·기후환경·디지털 5개 분야 약자를 지원한다.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기후환경 약자	디지털 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ex. 소아·청소년 등 치료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ex. 고독사 위험군안부전화)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ex. 빗물 받아 점검)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ex.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약자 (ex.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

○ **신체적 약자 지원** 시·자치구 398개 사업에 1,139명이 참여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52명)',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키움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 사업 (11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 **경제적 약자 지원** 시·자치구 281개 사업에 810명이 참여한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 배달 및 결식우려·독거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26명)’,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14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안전 약자 지원** 시·자치구 397개 사업에 2,840명이 참여한다.

지하철 출근 시간 및 야간시간 대 이용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지하철 안전요원(855명)’, 기상악화(폭염, 강풍, 폭우 등) 대비 안전 업무 수행 및 지역 내 위험요인을 파악·전파하는 ‘관악 행복샴터 이끄미(253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 **기후환경 약자 지원** 시·자치구 340개 사업에 1,763명이 참여한다.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단속 등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환경보안관(89명)’, 대규모 집객행사 쓰레기 투기 계도를 지원하는 ‘한강공원 환경정비(30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 약자 지원** 시·자치구 215개 사업에 595명이 참여한다.

어르신이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150명)’, 주민센터에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업무 처리를 돕는 ‘우리동네 디지털 안내사(21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 한편, ‘23년 상반기 모집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참여인원 7,147명 중 ‘사회안전 약자’ 지원 (40%, 2,840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25%, 1,763명), ‘신체적 약자’ 지원(16%, 1,139명) 등 순으로 참여자가 많았다. 기존 환경정비 사업에 지나친 편중(‘22년 54%)을 나타냈던 안심일자리 사업이 공공일자리 개편을 통해 ‘사회안전’ 및 기타 분야로 균등하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공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다른 약자를 위해 일하시게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붙임 :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개요 1부. 끝.

[붙임]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년 1월 ~ 12월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 ‘23. 1. 10. ~ 6. 30. / 하반기 : ‘23. 7. 1. ~ 12. 20.
- 목표인원 : 10,360명
- 소요예산 : 86,200백만원 (자치구 사업 : 시비 70%, 구비 30%)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장애인,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지급 : ‘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 ▶ 시급 9,620원 × 6시간 = 57,720원 ⇒ 58,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60,000원 지급 가능)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고
일당기준	29,000원	39,000원	58,000원	주휴·연차 수당, 식비 등 별도

- 사업유형 : ‘약자’의 유형을 세분화,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으로 사업 추진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기후환경 약자	디지털 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ex. 소아·청소년 등 치료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ex. 고독사 위험군안부전화)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ex. 빗물 받아 점검)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ex.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 약자 (ex.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